



저널: 1 호 멀리에서 가까이



에디토리얼: 멀리에서 가까이

김해주



테조를 위한 엽서

니나 우구데



절단,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
고무 산업 호황기의 야만주의와
문명화

프란시스코 카마초 에레라



1930년대 부산, 세계도시의
원형

한석정



전 지구적 사유를 위하여

육 후이



에디토리얼: 멀리에서 가까이

김해주

김해주는 2022 부산비엔날레의 전시감독이다.

2022 부산비엔날레에서는 3 회에 걸쳐 온라인 저널을 게재한다. 비엔날레의 전시 주제인 ‘물결 위 우리’와 연계하여 부산과 다른 국가, 지역을 가로지르고, 땅과 바다로부터 전파와 기술에 이르며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미래의 시간을 조망해 보는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글 모음인 『멀리에서 가까이』는 근대 부산에서 일어난 변화의 조류가 어디로부터 흘러오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가늠해 본다. 부산이 농촌 기반의 내륙인 동래 중심에서 바다에 면한 도시로 변모하게 된 첫 계기는 1876 년 개항이었다. 수차례의 매립을 통해 항구가 건설되고 철도로 이어지며 부산은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관문이 되었고, 대륙을 향하던 시선은 바다로 확장되었다. 2022 부산비엔날레의 준비프로그램 「부산을 말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https://www.youtube.com/watch?v=peTd9TgK0EQ> 에 참여한 문헌학자 김시덕은 그의 저서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¹를 통해 이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대륙과 해양 세력 간의 충돌이 1592-

1598 년 임진왜란에서 한 차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16 세기 중반까지 조선이 대륙과 접한 북쪽에 군사력을 집중했다면 임진왜란은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대항해시대’를 주도한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이 인도,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활동을 전개하던 때와도 겹친다. 해양과 대륙 사이의 지정학적 동력은 19 세기 말 다시 작동하여 청,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한 끝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지금의 부산은 이러한 근대의 상황 속에서 도시로 출현하

¹ 김시덕,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임진왜란부터 태평양전쟁까지 동아시아 오백년사』(서울: 메디치, 2015).



게 된다. 여기에 모인 글들은 도시 부산의 태동과 맞물려 가깝고 먼 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단편을 통해 한 도시와 전 지구적 상황을 병치해본다.

니나 우구데의 「테조를 위한 엽서」는 식민 지배를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 세대 간에 전달했던 신화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엮은 픽션이다. 이 가운데에는 작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이야기도 포함된다. 글에 등장하는 산과 바다를 비롯한 여러 상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 역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땅의 권력과 해양 권력 사이의 역학 관계를 의미한다. 작가의 우화적인 글은 근대적 사고로 언어를 정제하는 방식이 유기적이고 명멸하는 이 토착의 이야기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2022 부산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프란치스코 카마초 에레라의 글 「절단,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 고무 산업 호황기의 야만주의와 문명화」는 ‘절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고무나무의 재배와 채취, 고무 합성수지의 이동 과정에 수반하는 야만의 전파 과정을 탐구하는 그의 신작과 맞닿는다. 19세기 후반 아마존과 콩고의 야생 밀림에서 일었던 고무 붐은 1910년대 영국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의 플랜테이션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그 원자재를 수입하여 고무신 공장을 설립하고 신발 산업이 성장한 부산의 상황과 직결된다. 이 새로운 작업을 위한 리서치에 해당하는 이 글은 특히 라틴 문학에서 밀림을 묘사하고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을 서술하는 방식과 토착 부족 시인의 서술을 대비한다.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석정의 글 「1930년대 부산, 세계도시의 원형」은 근대도시 부산의 확장과 인구 이동, 그리고 그 팽창이 만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개항과 함께 근대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한 부산은 1930년대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양방향의 이주 통로로 ‘동아의 관문’이라 불리며 각각 대륙과 일본으로 가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열차와 배로 실어 날랐다. 항구를 비롯해 1920년대에 완공된 기반 시



설은 철도와 통신을 연결하며 1930 년대에 크게 확장되었다. 한석정 교수는 저서 『만주 모던』²에서 1960 년대 한국의 불도저식 지배 체제의 연원을 식민주의, 특히 해방 전 만주 경험에서 찾는다. 재만조선인들의 경험이 냉전 이후 한국 사회에 전해진 흐름을 ‘만주 모던’ 즉 건설과 동원, 경쟁 등 압축 성장을 만든 경직성 근대로 지칭하여 설명한다. 책의 2 장 ‘만주와 조선’을 압축한 이 글은 만주로 향하는 통로가 되었던 당시 국제 도시 부산의 모습을 보여 준다.

홍콩 출신의 기술철학자이자 2022 부산비엔날레의 큐레토리얼 어드바이저인 육후이의 「전 지구적 사유를 위하여」는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 년 12 월 『이플렉스 저널』에 실린 글이다. 그는 글로벌화와 전 지구적 사고를 구분하여 글로벌한 것과 지역적인 것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글로벌화의 변증법적 사유가, 팬데믹과 함께 종언하였음을 선언한다. 그 대신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전 지구적 사유를 주창한다. 여기서 이 다양성은 다시 생명 다양성, 정신 다양성, 기술 다양성으로 나뉘고, 생명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지역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본다. 이 같은 다양성을 창발하는 전 지구적 사유가 지역성에 기반하여 기술과 정신에 연결된다고 보는 육후이의 글은 부산의 로컬리티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여 전 지구적 상호 연결을 탐색하는 2022 부산비엔날레의 시도를 뒷받침한다.

² 한석정,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문학과 지성사, 2016).



테조를 위한 엽서

니나 우구데

북슬라웨시 탈라우드 제도의 카바루안 망가랑 출신의 우구데 가족 구성원인 니나 우구데는 네덜란드에서 문학 및 현대미술 관련 글을 쓰는 작가, 번역가 및 편집자로 글, 에세이 등을 출판했다. 인도네시아와 벨기에에서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낸 작가는 겐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파푸아 내륙의 지도를 그린 할아버지, 시각 예술가인 아버지, 그리고 작가로 활동 중인 본인의 3 대에 걸친 우구데 가족의 역사를 추적하고 인도네시아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민속 이야기, 언어, 역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천상의 바왕군라레가 신성한 뱀이 되어 슬라웨시 바닷속을 배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뱀은 인도네시아 최북단 카바루안섬에 정착해서 토우산에 올라 나무의 정령 위이 와티카와 결혼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선조들은 많은 것을 전해주었지만 그중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길이 없다.

—탈라우드제도의 전설

우리 중 누구도 테조를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초대할 것은 테조였다. 그는 북적이는 반동 거리를 거닐던 우리 제각각을 우연히 만났고 그날 도시 외곽 언덕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다. 테조의 집은 화산 기슭에 있었고 그는 근사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테조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의 아내 위이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그를 거리로 보내 함께 나눠 먹을 사람들을 찾아보게 했다.

모두 다섯 사람이 모였다.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사람이 모여 테조의 집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간단히 이름과 국적으로 자신



을 소개했다. 마치 각자의 삶을 주로 채우고 있는 활동이나 찌는 듯이 더운 날씨의 반동으로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온 이유보다 국적이 우리 자신을 더욱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테조의 집은 인도 제국 양식을 연상시키는 식민지 시대의 저택으로 네덜란드와 자바의 건축 양식을 접목하여 앞뒤로 베란다가 있었고 지붕은 조글로 Jogle 양식이었다. 우리는 뒤쪽 베란다에 있는 라탄 의자에 편히 앉아 잠깐 동안 울창한 산비탈의 빼어난 경치에 감격했다. 위이가 달달한 다과를 내왔고, 내 기억에 제일 먼저 말을 시작한 사람은 네덜란드인이었다. 그는 음료를 손에 든 채 마치 자기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저택에 대해 애정 어린 찬사를 표했다.

“그럴 겁니다.” 테조가 눈을 찡긍하며 답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었으니까요.” 네덜란드인은 씩씩한 미소를 지었고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인도인이 그의 고향 케랄라 지방의 코치에서 이와 같은 저택들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다.

“흥미롭네요, 뱃사람들이 집을 훔치려고 그 산 위까지 가는 모험을 했다는 게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덜란드인이 물었다.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만드시죠?”

“육지와 바다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인도 사람이 답했다.

이어서 그는 자라를 찾으려다 익사했고 지금은 뱀바나드 호수 아래에서 영원히 쉬고 있을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식용 자라를 잡으러 갔던 소년의 이야기가 정치적이지 않냐고 물으면서 말이다. 말을 끝낸 후 그 인도인은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잘 모른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우리는 위이의 크리스마스 저녁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독실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엄하고 푸르



른 풍경 속에서 침묵했고 이후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자못 안도했다. 그 성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가를 들으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후 워이가 산에 대해서 언급할 때까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워이는 산이 살아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산은 그녀에게 우뚝 솟은 불편한 존재로 그녀는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산이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그녀의 오빠가 테조를 소개했던 날에도 워이는 문자 그대로 땅이 그녀의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산의 뜻에 따르는 법을 배웠다.

“화산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게 둘 순 없죠!” 영국인이 외쳤다.

“이방인인 당신은 할 수 있고요?” 인도인이 비방하는 말투로 물었다.

필리핀인은 그녀의 고국에 있는 피나투보산에서 두 사람이 언급한 일이 모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1991년 화산이 폭발하며 끓고 있던 용암이 미군의 최대 규모 해외 기지였던 클라크 공군 기지를 덮쳤다. 그곳의 건물들은 화산재의 무게로 인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인들은 필리핀을 떠났으며 결국 기지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테조가 필리핀인에게 물었다.

“믿거나 말거나, 필리핀 독립기념일에 그랬다니깐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에 상당히 흥미를 느꼈고 영국인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또한 화산 분화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탐보라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 기둥이 엄청나



게 높이 치솟아서 성층권까지 올라갔대요. 그게 전 세계의 날씨 패턴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랑켄슈타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인도인이 물었다

“비가 왔어요.” 영국인이 답했다. “그해 여름날이면 날마다 비가 왔었죠. 그래서 메리 셸리와 친구들이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무서운 이야기들을 지어냈대요. 단지 심심해서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덜란드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인도인이 나에게 물었다. “이 중에 뭐라도 써 보지 않을 건가요?”

“그래요. 글로 써서 보내줘요. 지금 말고 미래의 언젠가, 먼 곳에서 온 엽서처럼 말이에요.” 테조가 말했다.

나는 아주 짧게 영감을 받기 때문에 단편 소설이나 겨우 쓴다고 항변했다. 이어서 나는 욕조에 있을 때 말고는 항상 무엇을 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욕조에서조차 긴 글은 생각해 내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내 경우에 글쓰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 셈이다. 테조와 워이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다. 유일하게 인도인만이 물속에 앉아서 온종일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그의 아들이자 첫 아이이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그의 핏줄이었던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신을 물을 사랑한 여인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테조가 농담으로 말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은 “그렇게 오랜 시간 욕조에 있다면 물을 사랑한 여인이 아니라 물고기 여인이겠죠.”라고 반론했다.

“지금, 지금은 말이에요.” 워이가 조용히 말했다. “물고기가 제일 매력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말문이 막혀 보였던지 그녀는 이어서 바다뱀과 카바루안섬의 조상, 천상의 바왕군라레 설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물고기를 모든 생명체의 힘과 연관 짓는답니다. 칭찬으로 들으세요!”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긐 했다. “제가 물고기자리예요.”

그다음 우리는 돌아가며 별자리를 말했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물고기자리이거나 양자리였다. 모두들 이 상황을 다소 기이하게 느꼈는지 이 주제는 재빨리 마무리되었다. 테조만이 물병자리였다.

“소외된 기분이 드시나요?” 인도인이 물었으나 테조는 외면했다.

대신 그는 “제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라고 말한 후 20분이 넘도록 남태평양의 전설 속 여신 나이로로키둘에 대해서 말했다.

“그 분이 마타람 Mataram 왕국의 술탄 아궁 Agung 과 결혼하지 않았던가요?” 필리핀인이 물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 자바 북부의 항구 도시들을 점령한 후 마타람 왕국의 술탄 아궁에게 남부 지역을 조사하도록 했고 그곳에서 그가 바다로 나간 젊고 잘생긴 어부들의 목숨을 앗아간 장엄한 영혼의 여왕 나이로로키둘 설화를 발견했다고 테조는 답했다.

“그래서 그가 그녀와 결혼했나요?” 네덜란드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 모두가 그랬지요.” 테조가 설명했다. “술탄 아궁과 그 뒤를 이은 모든 통치자들 말입니다.”

“술탄 아궁과 그 뒤를 이은 모든 통치자들 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소리쳤다.

“불가능이란 없어요.” 테조가 반박했다. 전설에 의하면 남태평양에 사는 그 여신은 종종 물에서 나와 육지를 산책한다고 테조는 설명했다. 여신의 목표는 화산을 만나 강제로 결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녀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어느 날 바다와 화산, 물과 불이 만나게 된다면, 자바 섬이 둘로 나뉘질 것이라고 말이다.

“물고기는요?” 인도인이 물었다.

테조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무슨 물고기요?”

“이게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인도인이 대답했다.

“그런 적 없어요!” 테조가 외쳤다.

“지금, 지금은 말이에요.” 데자뷰가 느껴지는 가운데 워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나이로로키들이 물고기인가 봐요. 혹은 바다뱀일지도 모르죠. 몸의 일부는 여인이고, 일부는 뱀이라든가요.” 이 생각은 흥미로웠고 모두가 크게 웃었다. 워이가 대화를 이끌면서 인도인이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대체로 안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웃음을 그쳤을 때 테조는 서쪽 자바섬의 남쪽 해안에 있는 인나 사무드라 비치 호텔이 남태평양의 여신을 위해 308 호실을 영구히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다.

“그 모든 게 네덜란드인들이 그 땅을 훔친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도인이 말했다.

“기억하라고 말하기...” 워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치며 디저트를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나나 튀김!” 그녀가 외쳤다. 그녀가 너무나 단호하게 부르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바나나가 스스로 방에 걸어 들어온 줄 알았다. 테조와 우리는 모두 바나나 튀김을 연이어 외쳤다. 워이가 접시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부른 나머지 다른 음식을 한 입도 더 먹기 힘들었다. 워이는 바나나를 테이블에 놓았고 우리는 그것을 마뜩찮게 바라보았다. 이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 들시다!” 우리가 주저하는 것을 느낀 테조가 말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모를 일이죠.” 인도인이 말했다.

최소한 그 말에 관해서는 인도인이 옳았다. 누군가 죽을 것이었다. 정확히 58 일 후, 새해를 맞이한 지 거의 두 달 정도 된 어느 밤 테조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그는 화산을 향해 몇 분간 걸어간 후 작은 강가에 앉아 있다가 사망했다.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에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날은 우리가 서로를 본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당시에 그것을 몰랐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테조가 죽은 후 인도인이 나를 찾아냈고, 그가 죽어서 썩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테조가 죽었어요.” 전화기를 통해 그가 말했다.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정확히 깨닫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알아차린 뒤에는 마법처럼 테조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났다. 온화한 목소리를 지닌 다부지고 강건한 키 작은 남자의 활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인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했다면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반동으로 여행을 갈 것을 제안했다

“아마 우리 중 누군가는 장례식에서 한마디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가 말했다. “아마 그 사람이 당신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당신은 그에게 멀리서 엽서를 보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후 인도인은 침묵했고, 너무나 조용해서 나는 잠시 그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상상했다.

나는 그가 연락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중



히 답했다. 인도네시아로 다시 여행을 가서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에 했던 말은 그날 밤의 일이고 테조가 살아서 들을 수 있었을 때의 일이다. 말하지 않고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다. 나는 인도인에게 바쁘다고 말했다. 화산과 뱀 여왕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진 그날 저녁을 회상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말이다.

“무슨 화산이요?” 인도인은 놀라서 물었다. “어느 여왕이요?”

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가 놀라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생겼죠?” 나는 결국 물었다. “당신이 아는 테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왜요, 당신이 아는 분과 같죠!” 인도인은 외쳤다.

그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다. 잠시 동안 나는 수화기 반대편에서 그가 씩씩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테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인이 말했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윽고 우리는 찝찝하게 대화를 끝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호수 바닥에 있는 소년에 대해서 생각했다. 피나투보산이 산비탈에서 압제자를 쓸어버린 일에 대해서 생각했고, 메리 셸리의 음울한 여름 오후에 관해서도 생각했다. 나는 화산을 집어삼키고 땅을 쪼개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남태평양의 맹렬한 신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자마자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몇 년간 나는 테조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이제 그의 얼굴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가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북적이는 시장을 지날 때, 날이 덥고 거리가 붉빌



때 뒤를 돌아보며 그곳에서 그를 볼 수 있기를 작게나마 바란다.

2022 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니나 우구데 지음

(리카 사나키 ^{Rika Sanaky}, 바더 우구데 ^{Vader Ughude} 를 기억하며 이 글을 헌정합니다. 더불어 구전을 통해 생생한 역사를 보존해주신 모든 디아스포라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번역: 정유진



절단,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 고무 산업 호황기의 야만주의와 문명화

프란시스코 카마초 에레라

프란시스코 카마초 에레라는 2022 부산비엔날레 참여작가 중 한 명으로 사회 행동과 참여적 예술을 결합해 여러 공동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하는 것을 작업 목표로 삼는다. 최근 그는 식민지 역사가 공시적, 통시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하며 남미와 아시아의 식민지 역사 및 문화의 연관 관계를 다양한 층위의 리서치를 통해 작업으로 선보이고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 《Participation Mystique》(밍 현대미술관, 상하이, 2020), 제 5 회 우랄 산업비엔날레(예카테린부르크, 2019), 제 21 회 시드니 비엔날레(2018), 《현실비경》(토탈미술관, 서울, 2018) 등이 있다.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나무는 소리를 낸 것인가?

— 클로인의 주교, 조지 버클리, 『인간 지식의 원리에 관한 논문 A Treatise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1734).

우리의 영혼은 나무의 몸통과 같아서 지나간 개화^{開花}를 기억하지 못하고 껍질에 난 상처만 기억한다¹

—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 『소용돌이 The Vortex』, 1924.

이 글은 야만주의^{barbarism2}의 개념에 대한 탐구를 제안한다. 야만주의는

¹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 지음, 『소용돌이』, 조구호 옮김(문학과지성사, 2022), 126. —역주.

²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야만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야만주의는 한 사회 내 혹은 어떤 사회와 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과 도덕적 행동 체계



동시대 역사에서 문명화라는 민주적이고 낙관적인 발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동시에 야만주의는 문명화의 두 축인 문화 및 인류 진보의 정반대 지점에 자리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역사주의 Historicism³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칼 포퍼의 견해를 재확인하며 진보와 문명화의 형태로 구현된 역사주의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19세기 후반 아마존과 콩고의 야생 밀림에서 고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1910년대 싱가포르 지역에서 고무나무가 재배되며 광범위한 자연 파괴와 벌목이 진행된 시기까지, 고무나무 착취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요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

미개주의와 진보는 정치 팸플릿의 형태로 뒤섞여 고무 붐과 그에 따른 고무 합성수지의 여정에 함께했다. 이는 1880년대 영국 회사들이 아마존의 야생 지역 원주민을 대규모로 몰살했던 시점부터 1930년대 일제강점기 한국의 고무 공장에서 유독 가스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집회가 조직되었던 시기까지 이어진다.⁴ 이러한

의 분열과 파괴이다. 둘째, 야만주의는 인류의 합리적 진보(생명, 자유, 행복에 대한 추구, 평등, 자유, 박애 등)에 헌신하는 국가 제도에서 구체화된 도덕적 행동 기준과 그러한 규칙이 보편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한 반전을 의미한다. 에릭 홉스봄 지음, 『역사론』, 강성호 옮김(민음사, 2002), 406.—역주.

³ “역사주의란 모든 사물과 사실이 역사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다고 보고, 역사성을 통해 이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고방식이다.” 이한구, 「역사주의와 반역사주의」, 『한국사학사학보』 제24호, (한국사학사학회, 2011), 98.—역주.

⁴ 1929년 세계 공황의 여파로 1929~31년 사이 한국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으며 1930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 8만여 명 중 25%인 1만9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 시기 노동 투쟁의 양상 또한 시위, 공장 습격, 파업단 구성, 파업 기금 마련, 연대 투쟁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특히 평양 지역은 소비재 산업인 고무업이 경제 공황의 영향을 받았으며 임금 인상 요구 3건, 임금 인하 반대 16건 등의 쟁의 이슈가 있었다. 특히 1930년의 총 파업은 당시 신문들이 ‘계급 전쟁화 한 평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격렬했으며 그 여파가 1931년 8월 평원 고무 공장 파업까지 이어졌다.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79) 평원 고무 공장 파업 이끈 불꽃 삶」, 『한겨레』, (1991.09.06.), 7면.



역사적 기간은 토지와 천연 자원을 탐하는 야만인의 침략이 문화적 쇠퇴로 이어진 역사적 논의의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논의를 대신하여 진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지구 파괴, 범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의미했던 문명화가 야만적 자멸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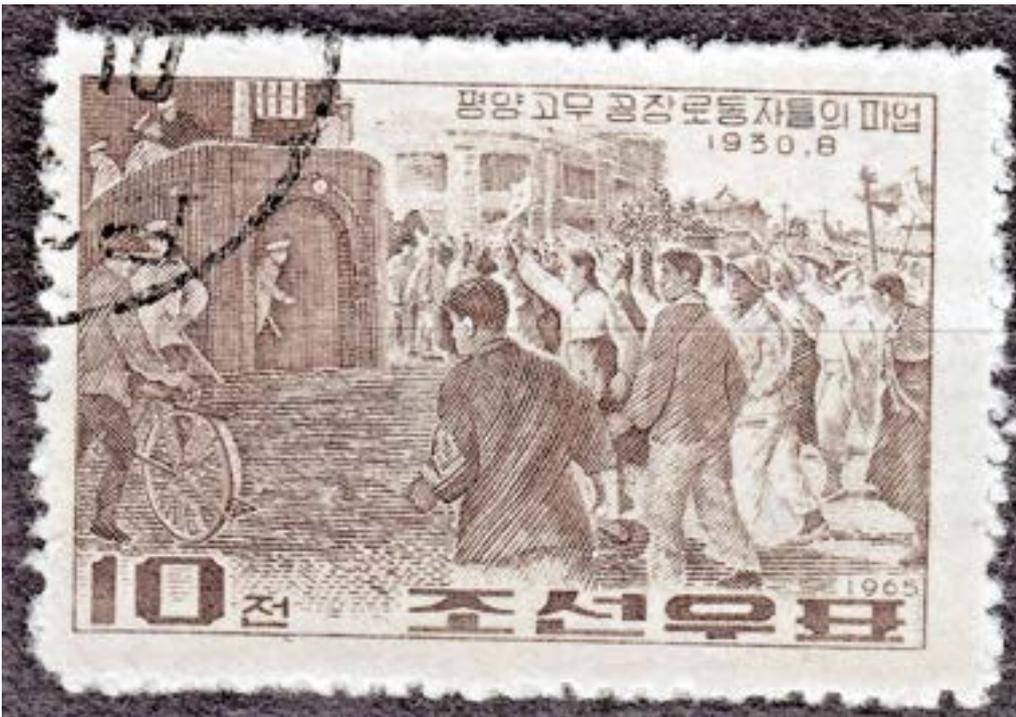


사진 1. 조선우표, 1965. 작가 소장.

고무 합성수지의 이동은 동시대 문명화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문화적 붕괴에 기여하는 자기 야만주의의 모든 요소들을 보여 준다. 우리는 노예제, 문화적 몰살, 황폐화, 자연환경 파괴,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등에 대한 강력한 관념에 직면하며, 이는 야만이 되어 사회 분열 및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결국 문화적 쇠퇴로 이어지는 요인이 된다.

고무나무 훼손은 얼핏 피상적이고 지속 가능해 보이지만 정치사회적 물리력이 동원되면서 점차 황폐화, 대량 학살, 인권 침해의 체계가 공고해

—역주.



진다. 또한 고무나무 산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지구의 생물학적 균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에드워드 기번이 “제국의 역사란 인간 불행의 기록”이라고 언급했듯, 잘리고 훼손되어 고초를 겪는 고무나무는 이 불행의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후기 근대를 형성한 장치가 되어 왔는지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이다.

기번과 유사한 관점을 지닌 칼 포퍼는 『역사주의의 빈곤 Poverty of Historicism』(1957)에서 우리가 역사를 정치적 및 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과정을 주장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말한다. 그는 근대의 역사적 내러티브가 확신하는 자연 발생적이고 유일하게 통합된 역사적 과정이라는 관점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역사적 동향과 ‘비역사적’인 동향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문명화 및 야만주의의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 이 연구에서 ‘비역사적’인 것들은 고무 생산의 서사에서 직면한 야만주의와 함께 다뤄진다. 고무 생산의 서사에서 대량 학살, 노예제, 문화적 몰살, 삼림 벌채의 동기는 우화가 되고, 문명화 개념의 역사적, 자연적 구조와 통합되지 않으며, 추후 역사적인 것들의 개념을 구현한다.

푸투마요 원주민의 생생한 문학은 백인 식민지 개척자가 일으킨 문화생태적 환경 파괴를 이야기한다. 백인들은 고무나무를 잘라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데 필요했던 고무 합성수지를 얻고자 했으며 그로 인해 원주민들의 환경이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서사는 노래, 이야기, 시의 형태로 구전되며 그 중심에 자르는 행위가 있다. 이들 이야기 속에는 하나씩 나무에 상처를 내는 절단 행위부터 선이나 기하학적 드로잉을 나무에 새겨 백금이나 마찬가지로 수액을 뽑아내는 행위까지 다양한 규모와 유형으로 나무가 절단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식민지 개척자가 원주민을 체벌하며 사지를 절단하는 행위나 밀림을 파괴하는 전 지구적 삼림 벌채 등은 모두 문명화라는 그릇된 이름이 붙은, 사악한 조각 행위이다.



절단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는 일은 밀림의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파괴되는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여전히 착취되지만 재논의되지 않는 아마존 밀림을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묘사한 고무 호황기의 밀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소설을 통해 고무 무역가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먼저 소개할 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두 편의 소설을 통해 원주민 대학살과 고무 생산이 외국인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는 소설 『소용돌이』를 통해 인간의 드라마를 통제하는 살아 있는 존재로서 밀림에 주목한다. 그림자를 생성하는 밀림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동시에 멈추어 있다. 마치 인간의 드라마와 실존적 딜레마를 목격하는 동시에 장면을 통제하는 조각 작품처럼 말이다.



2022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9호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8, BUSAN ASIAO MAIN STADIUM, 344 WOLDOCU ST.,
 YEONJUE-GU, BUSAN, 47900, KOREA



사진 2. 보도 사진, 1960. 작가 소장.

다음은 아마존 지역 고무 호황기 문명화 및 야만주의와 관련된 문학 작품의 특징이다.

1. 서사는 20 세기 전환기 서구의 인종주의 및 식민주의 철학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하



- 고 환경 보호 대신 경제적 승리를 우위에 놓는다.
2. 밀림은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는 장소로 그려지며 문화적 교류의 장이 아니다.
 3. 문명화에 대한 시각이 유럽인의 것과 동일하다.
 4. 원주민의 조상 전통을 경시한다.
 5. ‘인디언’으로 칭해지는 원주민은 배경의 일부이며 눈에 띄지 않는다.
 6. ‘콜로노스 Colonos’로 불리는 정착민이 추진한 문명화 사업을 역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강조한다.
 7. 원주민 대량 학살을 식민지 민족주의적 의제와 함께 보여 준다.
 8. 인종 차별적 문학이다.
 9. 밀림을 블랙홀, 허공, 푸른 지옥으로 묘사하며 자연을 ‘식민주의자’의 적들 중 하나로 만든다.

밀림을 외부적이고 위험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여기던 작가들의 시각은 원주민의 내부적 서사에서 밀림이 집으로 묘사되거나 조상들이 사는 영역으로 표현되는 것과 반대의 지점에 있다. 백인 침략자는 밀림을 멀리서 보며 이는 우리에게 밀림을 거의 조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서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는 외부적 관점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공한다.

페루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2010년 발표한 『켈트의 꿈 The Dream of the Celt』은 콜롬비아와 페루의 국경 지역에서 영국 법인 ‘아마존 고무회사’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던 영국 외교관의 소설적 전기이다. 바르가스 요사는 소설 속 영웅으로 영국인 회사들이 몰살시켰던 부족들의 페루 원주민 추장을 선택하는 대신 영국의 이익을 위해 영토와 무역에 관련된 임무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모험을 떠나 식민주의 문명화 사명을 이룬 공으로 막대한 찬사를 받았던 백인 남성이 대량 학살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르가스 요사는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페루를 마음 속 깊은 곳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주민 대학살의 서사를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백인의 법으로 그곳을 통치하려 그곳에 온 유럽인의 관점에서 서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야만주의를 자문화 말살 self-

cultural destruction 의 한 형태로 보여 줌으로써 이 글의 초기 목표를 상기시킨다. 밀림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의 문화가 그들의 땅에서 난 천연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이윤을 위해 몰살되고 자연을 숭상하도록 보존되어 온 그들의 조상 전통이 경시되며 이 모든 것들이 진보와 문명화의 미명하에 행해졌다는 사실 말이다.

콜럼비아 작가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는 1924년 발표한 그의 소설 『소용돌이』에서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밀림을 다룬다. 이 소설에서 밀림은 살아 있는 신체로 표현되며 때에 따라 의식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아마존은 다른 작가들이 밀림을 표현할 때 항상 사용해 왔던 인간 상호작용의 밋밋한 배경이 아니다. 리베라는 밀림을 조각 작품과 유사한 관점으로 보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분투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소용돌이』가 당대의 다른 문학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고무 및 다른 천연 자원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밀림이 주도하는 힘을 리베라가 간파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밀림은 주인공이며 작가는 밀림을 살아 숨 쉬는 신체로 표현하는 동시에 공간을 점유하고 그 속을 관통하며 관객에게 둘러싸이는 조각 작품에 비유한다. 밀림을 인물의 장식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에이월드경기장 3층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8, BUSAN ASIAO MAIN STADIUM, 344 WOLDOCCUP ST.,
YEONJUE-GU, BUSAN, 47900, KOREA



적 배경으로 묘사한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과 달리 리베라의 글에서 밀림은 백인 남성이 자연과 자신의 존재에 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존재이다. 리베라는 기존 소설이 가지고 있던 틀을 허물고 밀림이라는 유기체를 조각과 같은 예술 형식으로 치환한다. 그로 인해 밀림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내적 및 외적 본성을 지니며 인간을 자신의 조각품으로 만든다.

살아 있는 고무나무 몸통에 손도끼를 꽂을 때 자주 동전을 만지면서도 움켜질 수 없었던 내 손을 도끼로 찢고 싶은 욕망을 느꼈어. 돈을 벌지도 않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내 삶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데 주저하는 불운한 손!⁵

『소용돌이』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 속으로 흡수하는 대자연, 아마조나스 그 자체다. 우리는 오늘날 천연 자원을 지속 불가능하도록 훼손한 결과인 기후 변화 이슈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절단 행위는 지정학적 안무 choreography의 중심이 되었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대륙을 초월하여 자행되었다. 벨기에 치하 콩고에서는 원주민들이 일정량의 고무를 채취하지 못했을 때 손이 잘리는 처벌을 받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광범위한 자연이 고무 농장 조성을 위해 잘려 나갔다. 이러한 조각의 행위, 즉 자르는 행위는 고무의 서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며, 동시대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성해 온 배경이다. 어떤 자연물도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영향을 준 적은 없었다. 절단 행위는 여전히 열대 위도를 횡단하며 노동하는 육체와 생태계를 작동하는 안무가 되었으며 북반구는 이러한 절단의 궤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⁵ 같은 책, 294.



반복되는 절단 행위가 훼손 및 파괴 행위로 이어졌고 이는 아마조나스 지역의 사회 운동을 촉발하는 자극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사회 운동은 백인 문명과 지역 원주민이 직면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절단의 개념은 백인, 원주민, 그리고 밀림이 대면할 때의 주된 전략이다. 이러한 만남은 상호 교류가 아니라 문화 및 자연의 황폐화 과정이며 이는 야만주의의 전통적 개념을 답습한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9호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9, BUSAN ASIAD MAIN STADIUM, 344 WOLDOCU ST.,
YEONJUE-GU, BUSAN, 47900, KOREA



2022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9호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9, BUSAN ASIAO MAIN STADIUM, 344 WOLDOCUPI ST.,
YEONJIE-GU, BUSAN, 47900,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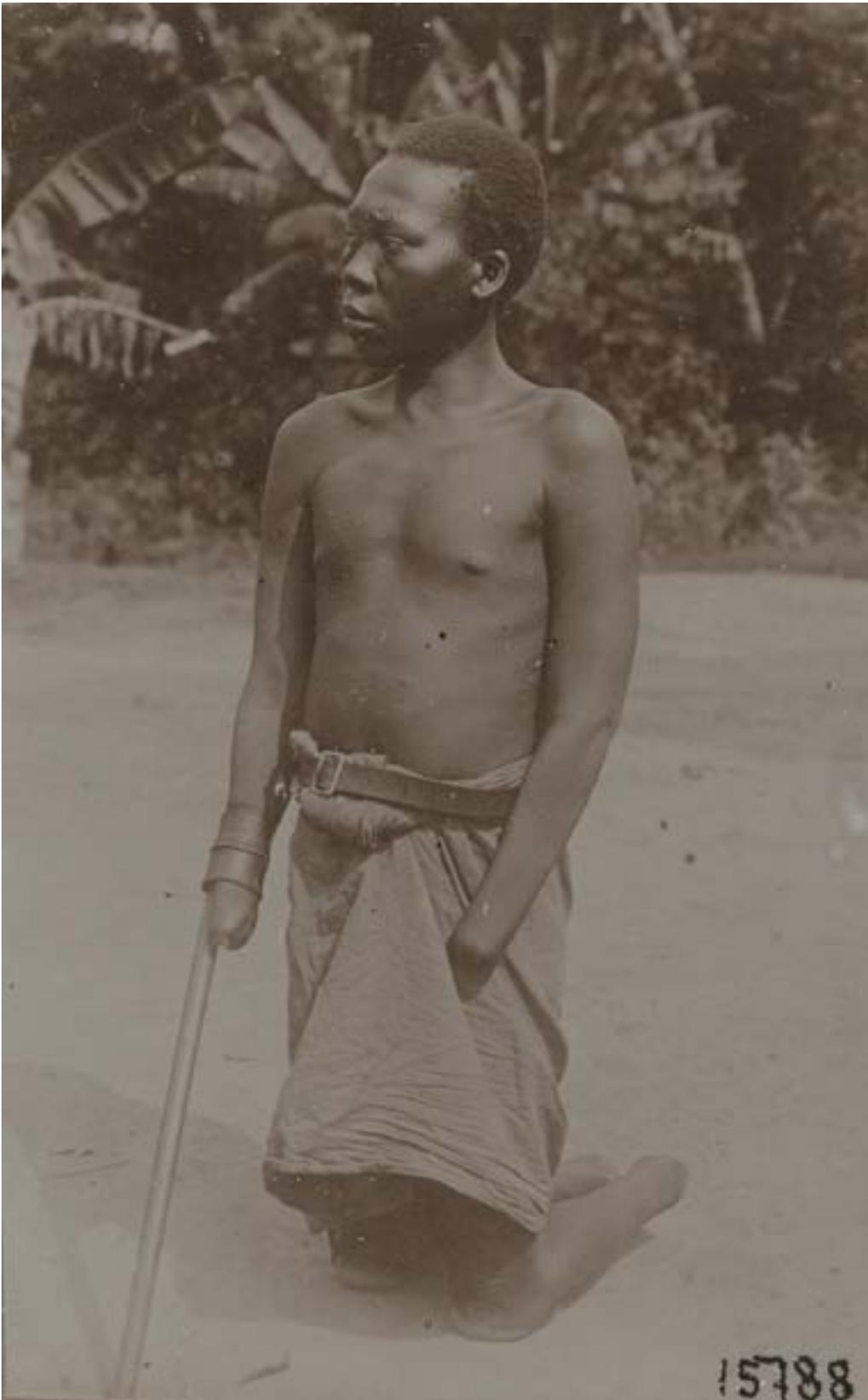




사진 3. 사진가 알 수 없음, 1912년 경.
 아프리카 박물관(테르뷰렌, 벨기에) 제공.

글을 맺으며 문명화와 야만주의를 다룬 작품 두 편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개척자가 그의 존재 과정을 이끄는 장치인 도끼에게 바치는 시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부를 좇아 밀림에 가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 과정을 겪으며 야생 밀림에서 문명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해진 운명이나 보장된 것이 없는 모험가의 삶을 살아간다. 도끼는 그에게 문화, 경제, 사회적 환경과의 매개이다. 두 번째 작품은 아마존 지역의 고무 호황기 동안 거의 몰살된 토착 부족 '보라 Bora' 문화의 시인이 쓴 비가^{悲歌}이다. 이 작품은 첫 번째 작품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도끼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도끼는 집단 학살, 야만주의, 문화적 붕괴의 대리인이다.

1.
 도끼 머리여
 나는 이 땅을 떠나오, 안녕
 당신과의 이별을 위해 망각의 약초를 찾는다오
 그렇게 떠나 다음을 기약할지
 혹은 당신을 잊게 될지 모르겠소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았다오
 겁쟁이는 결코 아닌 게지
 이 사슬을 잡아끌면서
 슬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옛말을 기억하리
 “안 하느니 늦은 게 낫다네, 친구여”
2.
 창조주, 창조주, 두 분의 창조주여
 당신께서 늘 경축하시는 중대한 잔치를
 저희는 누구와 함께하나이까



창조주, 창조주, 두 창조주시여
당신께서 늘 치르시는 중대한 잔치를
저희는 누구와 함께하나이까
어제 그 도끼 백인 주인이 와서
우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것
그것의 주인이라고 와서는
불길로 저희를 집어삼켜
모두 타서 없어지고
저희는 겨우 살아남았나이다
그들과 저희는 성대한 잔치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언제나
저희는 도끼를 향하나이다
저희가 바란 것은
백인의 도끼
그리고 그가 가진 것
그 너머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도끼가 저희를 내려치고
그들은 저희의 형제와 친구들을
불태우나이다
우리
당신께서 언제나 경축하시는
중대한 잔치

참고 문헌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켈트의 꿈』. 조구호 옮김. 문학동네, 2022.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송은주 옮김. 민음사, 2008.

2022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칼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이석윤 옮김. 벽호, 1993.

호세 에우스타시오 리베라, 『소용돌이』, 조구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2.

번역: 정유진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9호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9, BUSAN ASIAD MAIN STADIUM, 344 WOLDOCU ST.,
YEONJEU-GU, BUSAN, 47900, KOREA

1930년대 부산, 세계도시의 원형

한석정

한석정은 동아대학교 총장(2016-2020)을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주학회 회장, Japan Review 편집고문, 풀브라이트 재단 지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에서 동아시아학과 강의교수(1999-2000)로 활동했고 주요 저술 및 역서에는 한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던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불도저체제의 기원』(2016),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2008),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2007) 등이 있다.

이 글은 부산의 국제성의 기원에 관한 단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포들에게 “부산에서 평양, 신의주(한반도 최북서단),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파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은 이미 1930년대에 실현되었다. 한반도는 만주(지금의 중국에서 동북이라 부르는), 중국 본토와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부산은 일본과 중국 대륙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동아의 관문’이라 일컬어졌다. 부산과 영도(유명 소설 파친코의 시작점)를 이어주는 도개교인 부산대교(지금의 영도대교)는 지나다니는 선박들을 위해 하루에도 일곱 차례 상공으로 올라갔다(사진 1). 이는 ‘동아의 관문’의 상징이었다. 수많은 선객들과 화물이 부산을 통해 일본과 만주로 배송되었다. 고속 열차들이 부산에서 평토편(지금의 선양), 신징(지금의 창춘), 하얼빈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노조미와 히카리(현재 일본의 명물인 초고속 열차 신칸센의 이름)라고 불렸다. 남만주 철도(만주 소재의 일본의 준제국주의 조직)가 동청철도(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도)에 이어졌고, 유럽으로 가는 기차표가 도쿄, 오사카, 부산, 서울, 평양과 다롄에서 판매되었다. 기차들은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로, 부산에서 서울, 평양, 평토편과 신징을 지나 하얼빈으로 달렸다. 그리고 하얼빈에서 다시 모스크바와 파리로 출발했다. 부산에서 파리까지의 여정은 14일이 걸렸다.



사진 1: 1934년 완공된 다리 사진의 엽서(날짜 미상, 국제 일본학 연구센터 류 지엔후이 교수 제공).

만주 주변부의 등장

일본 제국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부산의 발흥을 가져왔다. 1930년대는 일종의 ‘월드 타임’(세계사에서 돌출한 시간)으로, 대공황 이후 퍼진 파시즘 같은 전세계적인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부산은 일본 사회가 군사적 확장의 길로 들어서면서 월드 타임에 들어섰다. 그 열기는 만주사변(1931년 일본의 남만주철도 위수군인 관동군이 만주 군벌에 벌인 전쟁으로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는) 당시 최고점에 도달했다. 일본 언론은 군국주의에 불을 지피고 ‘새로운 개척지’ 또는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일본의 생명선’으로서의 만주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식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했다.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는 역마차의 모습은 그들의 꿈을 자극했다. 만주에 대한 음반 판매도 폭발했다. 만주에 관한 약 4백수십곡에 달하는 노래들이 일본과 조선에서 만들어졌다. 만주에 대한 다양한 전시회를 포함한 미디어와 이벤트들이 유행했다. 또한 만주 관광에 대한 높은 수요는 항공 업계에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만주 붐이 조선에 상륙했다. 이는 조선을 질적으로 다른 시대로 이끌었다. 만주는 수많은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정치, 교육, 문학, 음악 그리고 종교계의)에게 있어서 수학, 취업, 여행, 정착, 망명 그리고 영감의 장소가 되었다. 유명한 미래의 엘리트들이 만주에서 자라거나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다. 여러 예술가들(그리고 태권도 사범들)에게, 만주는 연쇄 이주(한반도에서 만주, 일본, 유럽, 다시 한반도, 베트남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까지)의 주요 포인트였다. 당시 조선의 신문들과 저널들은 보고서와 기사, 여행 일지와 리뷰를 통해 만주 붐을 이끌었다. 만주에 대한 노래가 백 곡 이상 만들어졌다. 이는 부산에 사는 거주자들, 특히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극이 되었다. 어느새 ‘만주-몽골 문제’와 ‘만주 박람회’와 같은 강연들과 전시회들이 생겨났다. 관광객들에게 만주는 절묘한 행선지가 되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만주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 들어왔다. 러일전쟁(1904-

1905) 이후, 만주의 전쟁터와 기념비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에서 ‘만주 관광’이 시작되었다. 이는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뤼순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국민 교육이었다. 1931년 이후, 목적지는 만주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관광업은 점차 중산층들에게로 확대되었다. 부산의 사업가들은 평텐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로 여행을 한 뒤 공개 토론을 주도했다. 만주-

몽골 투자에 대한 강의와 수출과 채광 사업 투자에 대한 예측 등이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신 만주국의 현황’ 특집 연재는 후산닛포(한반도 동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었던 일본어 신문)에 자주 보도되기도 했다. 사업가들은 부산에 만주국 영사관을 세우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세계체제론(자본주의의 범세계적 팽창을 논한 사회과학 이론)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 있는 시장의 전망을 가진, 끝없이 저렴한 원자재와 노동력을 갖춘 주변부가 생겨난 것이다.



만주 붐은 부산에서 열렸던 만몽박람회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전시회는 한 달간 개최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노천 탄광인 푸순과, 만주 공을 가공하는 공장들, 상하이의 중일간 시가전, 그리고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의 신무기들을 전시함으로 일본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전시회 첫날,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도처에서 쏟아져왔다. 그리고 다음 해, 평토편과 다롄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다롄에서 열린 전시회는 거대한 부지(120 만 평방 미터 너비)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였다. 일본에서 다양한 무리들(일본군 사관 생도들과 향군회 등)이 1932 년 봄부터 북행을 위해 부산에 당도했다. 일본 대학과 기술 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30 개 학교의 1,600 명 학생들) 역시 여름 방학에 신설 만주국으로 '수학 여행'을 떠나기 위해 왔다. 여름이 되면 관광객의 수가 10,000 명에 도달했다. 시모노세키와 부산 간 관부연락선이 3 월부터 여행객들로 가득 찼다. 만주(이후 상하이) 관광안내소가 부산에 생겨났다. 몇몇 모험가들은 만주와 몽골까지 도보로 올라가려고 했다. 또한 어떤 이는 도쿄에서 신징까지 자동차 여행을 시도했다. 후산닛포는 그가 주요 도시들에 도착할 때마다 그의 여정을 보도했고, 그가 신징에 도착할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구독자에게 상을 내걸기도 했다. '만주 열병'은 일본에서 부산으로 퍼져왔다. 만주 변방에 도달해서 '만주비적'이 되기를 염원하는 '만주병 환자들'과 낭만을 좇는 '만주 모험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만주 열병'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끓어올랐다. 1932 년 4 월부터 시작해서 매일 수십의 일본 여성들이 만주에 가기 위해 부산 부두에 내렸다. 평토편의 호텔들은 그러한 여성들로 가득 찼는데, 그들 중 일부는 결국 옷가지와 시계까지 팔며 기생이나 호스티스 등으로 전락했다. 5 월에 들어서 는 여성들이 유람선의 3 분의 1 을 차지했다. 일본 매춘업소 사장들은 자신의 업소의 여성들을 동행하고 북행했다. 브로커들은 만주로 보내기 위해 부산에서 수 백의 호스티스들과 기생들에게 접근했다. 신징에 들어서 는 새 백화점에 난 20 인의 구인 공고를 보고 수 백 명의 여성들이 도쿄의 취업 알선소로 몰려들었다. 그 해 겨울, 극심한 추위를 무릅쓰고 여성



들이 계속 무리 지어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는 ‘유랑하는 여인들’(가라유 키 상이라고 불리는, 19세기 이후 규슈 빈민 지역에서 조선, 상하이, 다렌, 하얼빈 그리고 멀리는 블라디보스톡까지 호스티스나 창녀로 팔려나가는 여성들) 역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문사들은 이들의 여정을 “에로틱한 만주 행진” “호스티스 행진의 시작”

“홍등의 에로틱한 행진”이라며 감성적으로 보도했다. 만주는 여성화된 점유의 대상이었다. 1934년 부산에서 출발해서 평토편으로 가는 고속열차는 노조미(희망)이라 명명되었다.

만주와 부산

한국 민족주의 학자들은 식민 시대에 닦인 기반 시설에 대해 식민적 착취라는 주제를 부각한다. 그들은 부산의 기반 시설이 중일전쟁(1937-1945)을 위한 군수기지 건설과 전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만주가 부산의 도시 건설에 미친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당시 기반 건설은 계속해서 확장하는 부산항의 관성의 일부였다. 만주가 급부상하면서, 부산의 위상 역시 높아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였던 부산은 1930년대 제 1 항구의 위치에 도달했다. 그 공지는 컸다. 일례를 들자면, 후산닛포의 한 행사(‘항구 중계’라고 불리는)는 그 10,000 번째 호를 기념하며 부산을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추켜세웠다. 두 대의 선박(동쪽으로 서쪽으로 향하는 기차 팀을 태운)이 진남포항과 웅기항(조선의 최북서단과 최북동단)으로 각각 왕복 여정을 떠났다. 조선과 일본, 만주 그리고 상하이 주요 도시들에 지점들을 넓혀가며, 후산닛포는 국가경계를 초월하는 신문을 꿈꾸었다. 그 자부심은 교통의 요지로 자리잡은 부산의 역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엄청난 양의 상품과 사람들이 부산을 거쳐 오갔다. 만주행 조선의 수출량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본과 만주 간의 적지 않은 양의 중개 무역을 포함하기도 했다. 부산 세관에는 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개 무역의 범부가 존재했다. 1932년 만주를 향해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의 화물 양은 1년전보다 9 배나 증가했다. 또한 1920년대 후반에 비

해 중개 무역의 양은 5 배나 증가했다. 10 년간(1925 년에서 1935 년 사이) 조선에서 인구 성장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 역시 부산이었다(74%).

1937 년 관동군 사령관 출신인 새 총독 미나미 지로는 그의 부산 방문에서 ‘만주-조선의 일체’와 ‘대륙으로의 넓은 비전’을 강조했다. 그의 연설에 압축되어 있듯이 만주는 부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만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익숙했다. 북향하는 여행객들의 대다수는 일본 군인들이었다. 만주로 향하는 일본군이 부산항에 상륙했을 때 열렬한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항구와 역은 히노마루(일본 국기)와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기생들과 호스티스도 동참했다. 시내는 만주로 올라가는 군인들을 위한 환영과 작별의 무대가 되었다. 만주에서 돌아오는 군인들 또한 일본으로 출항하기 전, 형형색색의 종이들이 휘날리는 거리를 행진했다. 1937 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의 대도시들(난징, 광둥, 한커우, 그리고 우한)의 함락을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난징이 함락되었을 때, 부산 시청 바로 앞에 거대한 탑이 세워졌고 용두산 신사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일본 군인들이 야자 나무로 가득한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1939 년 3 월), 프렌치 사이공(1941 년 8 월) 그리고 루손섬(1942 년 5 월)으로 진군했을 때, 열대의 맥박이 부산에서 전달되었다. 1960 년대, 부산항은 다시 월남전으로 향하는 한국 군인들의 작별의 무대가 되었다. 군인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원과 악대의 음악소리로 둘러싸였다.

‘만주 퇴각’은 ‘만주 열병’과 동시에 존재했다. 어떤 사람들은 봄에 그들이 그리던 만주에 도달하여 모든 것을 잃고 파산까지 간 뒤, 가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보호소에서 웅크려 잠을 청하곤 했다. 만주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본 군인들이었다. 부상병과 사상자들의 유골이 느린 속도로 만주로부터 내려왔다. 마치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 썼던 그의 소설 카탈루냐 찬가에서 “신병들을 가득 채운 기차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길을 따라 올라가고, 불구가 된 사람들은 천



천히 내려왔다”라고 우화적으로 설명했듯, 일본 부상병들은 마스크와 긴 가운을 걸친 채로 부산 시내를 따라 천천히 행군해 내려왔다. 전사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단체 장례식이나 위로 행사가 간간이 열렸다. 도시는 오가는 군인들, 산 자와 죽은 자, 만주로 올라가고, 만주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양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지역적 특성 덕분에, 부산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간혹 경찰들이 차이나타운(지금의 초량 지역, 상하이 거리)의 아편 소굴에 들이닥치기도 했다. 일본과 만주국의 황족과 정치인들도 부산을 방문했다. 독일과 이태리 외교관들, 일본과 미국의 유도 선수 학생들도 왔다. 1936년 상반기, 부산에 방문한 외국인의 수는 30개 국가에서 온 60,000명 정도였는데, 이는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록이었다. 완전 새로운 부산이었다.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일본 해운회사(일본 유센, 다렌 기센, 그리고 가와사키 기센 등)의 6~9천 톤급 거대 선박들이 부산을 경유, 부산을 국제적인 항구로 만들었다. 서양식 파라솔을 들고 모자를 쓴 원피스 차림의 일본 여성들이 부두에 내리면서, 부산은 패션의 관문이 되기도 했다. (사진 2).



사진 2. 서양식 옷차림의 일본 여성들이 부산 부두에 내리고 있다. 출처: 1933년 7월 14일, 후산닛포.
 일본은 식민지에 중공업을 투자한 보기 드문 제국주의 국가였다. 그 독특함은 부산의 집중적인 기반 시설 건설에서도 볼 수 있다. 부산은 매일 파도처럼 오가는 사람들과 화물들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갔다. 총독부는 1920년대 이미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을 완공해냈다. 1930년대의 건설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20년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대륙으로의 관문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대형 선박들을 위한 정박 시설의 확장, 항구에 가까운 부산진 지역의 거대한 매립장, 도로 건설 및 포장, 전차 궤도, 부산-해운대간의 철로, 해운대-좌천(동남선이라고 불리는)간의 철로, 부산대교, 부산 시청 등이 끝없이 건설되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여객선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 축수(철로, 통신과 항로)를 뺀어 그전의 폐쇄적인 공간들을 열어젖혔다. 그 흡수력은 조선 도시들의 전통적인 질서를 뒤흔들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부산이 경성을 넘어 만주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다. 위도와는 반대로, 제국의 수도인 도쿄로 향하는 방



향에 따라 부산에서 경성으로 북향하는 철도는 ‘하행선’(쿠다리)이라고 불리는 반면에, 경성에서 부산으로 남향하는 철도는 ‘상행선’(노보리)라고 불렀다. 이는 지난 500 년간 조선의 수도이자 식민 정부의 행정부였던 경성의 상징성을 약화시켰다. 부산은 범국제적인 도시를 꿈꿨다. 지금의 ‘메가 시티’나 ‘글로벌시티’(뉴욕-런던-도쿄와 같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처럼, 부산은 도쿄, 오사카, 평토편과 신징 같은 제국의 대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부산의 확장은 만주국의 도래와 맞물렸다. 부산항은 물려 들어오는 화물과 인파로 지옥 같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수량은 매 해 기록을 갱신했다. 여객선 승객들(부산과 시모노세키 양쪽 방향)은 1932 년 70 만 명에서 1939 년 190 만 명으로 증가했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부산과 경성 양쪽 방향)의 수는 이미 1932 년에 100 만 명을 넘어섰다. 1939 년에는 이용객의 수가 매달 20 만 명에 도달했다. 총독부는 ‘동아시아 제 1 의 항구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 수준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부산, 교통 수단의 돌파구

부산은 항공, 선박, 기차로 일본 제국 전체를 연결시킨 교통의 중심지였다. 교통의 혁명이 영국에서는 산업 혁명 이후에 일어났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자가 후자를 주도했다. 철로 수단의 발전이 미국에서는 수운의 발전 이후에 일어났지만, 일본 제국에서는 모든 교통 수단들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났다. 관부선의 운항시간이 1930 년대에 들어서서 기존의 9 시간 반에서 7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6,7 천 톤급 금강환(‘흑해의 여왕’이라 불림)이나 흥안환과 같은 거대한 일본의 선박들이 1937 년 부산으로 향하며 매일 2,000 명의 승객들을 부산에 내려줬다. 1939 년 말, 만주로 가는 고속철도 티켓이 관부연락선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며, 만주행 여행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1939 년, 매일 3,000 명 정도의 일본 승객들이 부산 부두에 상륙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시모노세키와 히로시마, 부산-서울, 부산-



후쿠오카 간의 해저통신이 연결되었다. 이런 해저 통신망은 제국 내에서의 무선 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항공편 역시 일본과 만주 사이의 비행 시간을 줄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한 일본 육군항공학교의 비행기는 일본에서 신징(4,800km)까지의 비행을 감행했다. 7 대의 비행기들이 나고야 신문에서 개최한 한 행사(일본-만주 항공 마라톤이라 불리는)에서 도쿄에서 신징까지의 왕복 여정에 성공했다. 50 명의 승객을 태운 한 비행기는 신징-니가타-도쿄 노선을 10 시간에, 도쿄-다렌 노선을 7 시간에 걸쳐 비행했다. 일본-조선-만주(또는 오사카-경성-평텐) 항공로가 드디어 열린 것이었다. 다음 목표는 도쿄-베이징 노선을 개통하는 것이었다. 만주항공회사(만주국 정부, 남만주철도회사, 그리고 관동군 산하의 스미모토 그룹 공동 소유)는 주요 노선으로 신의주-평텐-신징-하얼빈-치치하얼 노선을 개통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경성-후쿠오카-도쿄 노선으로 확장되었다. 더 나아가 1945년에는 46 대의 비행기를 가진 큰 회사로 성장했다. 국수의용항공단이라 불리는 회사를 설립한 사사카와 료이치(후에 도쿄 재판소에서 A 급 전범 선고를 받음)가 만주의 항공을 홍보하며 전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당시, 비행 수단을 이용해서 만주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려는 관광객들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 1937년, 신징에서 평텐을 지나 다렌까지 3 시간 반의 비행을 한 뒤, 다렌에서 오사카까지 9 시간 20 분의 비행(신의주, 평양, 경성, 대구, 울산, 그리고 후쿠오카를 지나)을 하는 것이었다.

부산에서는 철도의 대발전이 일어났다. 일본 제국은 야심 차게 부산발 만주행 열차의 운행 시간을 단축했다. 1932년 부산에서 안동(만주의 관문)까지의 운행 시간은 13 시간 반에서 12 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934년 노조미와 히카리 고속 열차는 각각 부산에서 평텐으로, 부산에서 신징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연말, 몇몇 열차들은 부산 부두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우등 칸들이 추가되기도 했다. 히카리로 도쿄에서 출발해 부



산을 거쳐 신징까지 이르는 데에는 50 시간이 걸렸다. 노조미는 도쿄에서 경성 노선과 도쿄에서 평토편 노선의 운행 시간을 각각 3 시간 반 그리고 8 시간으로 단축했다. 유선형 특급 열차인 아지아호는 다롄에서 신징까지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렸다. 1936년 말에는, 아카츠키호가 8시간에 걸쳐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달했다. 이듬해인 1937년, 츠바메호가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13시간 만에 도달했다. 도처에서 속도경쟁이 붙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특급열차 다이리쿠(대륙) ('세기의 국제 열차'라 불리는)가 부산에서 8시간 만에 떠나 베이징에 당도했다. 다이리쿠는 39시간에 걸쳐서 부산에서 베이징까지의 2,100km 거리를 달렸다. 코아호는 마치 총알처럼 베이징에서 부산 부두까지 그 반대 노선을 달렸다. 후산닛포는 "끝없는 가속!"

"조반을 부산에서, 석반을 안동에서"

"총알처럼 날아가는 열차들" 같은 제목으로 황홀경 속에서 기록적인 뉴스를 전했다. 열차들은 중국 대륙, 만주, 조선, 그리고 일본을 놀라운 속도로 연결시켰다. 부산은 이 소용돌이의 중심이었다.

요컨대, 서양과 일본 제국들은 철도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식민지 내부의 기존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옛 지형을 크게 변형시켰다. 일본 식민주의는 부산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다. 그 유산은 1930년대 만주와 일본을 이어줬던 철도와 항구에서 특히나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부산은 해방 후, 그리고 6.25 전쟁 당시(1950-

1953), 북한과 해외에서 온 수 백의 피난민들을 흡수하고 그 문화적 특성들이 뒤섞이며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또한 유엔군이 북한 공산군의 침공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다수의 인도적 구호단체들에게 발판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부산은 20세기에 일본 식민주의로부터 불어온 국제화의 강풍과, 미군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주둔으로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이자 한국 영화의 메카로서 다채로운 해양 도시로 변했다.



2022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층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8, BUSAN ASIAO MAIN STADIUM, 344 WOLDOCU ST.,
 YEONJUE-GU, BUSAN, 47500,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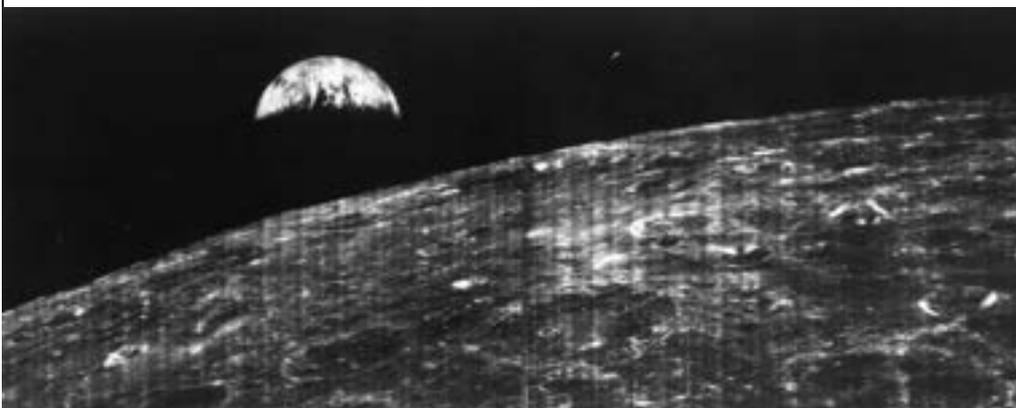
면적: 100㎡



전 지구적 사유를 위하여 육 후이

육 후이는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프랑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지도 하에 박사 학위논문을 썼으며, 독일 로이파나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후이의 저서들은 십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디지털적 대상의 존재에 대하여』(미네소타대학 출판부, 2016),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 코스모테크닉스 시론』(어바노믹, 2016), 『재귀성과 우연성』(로우맨&리틀필드, 2019), 『예술과 코스모테크닉스』(미네소타대학 출판부, 2021) 등이 있다. 2014 년부터 ‘철학과 기술을 위한 리서치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의장으로 있으며, 현재 베르그루엔 철학상의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홍콩시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e-
 flux journal #114 호(2020 년 12 월)에 실린 글이다. 아래 논의에서 주로 자본에 의해 추동되는 전 지구적 물질 운동은 ‘globalization’이라는 용어로 이해하며, 저자는 그에 맞선 사유의 운동으로 ‘Planetary Thinking’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서는 global 은 ‘글로벌’로, ‘Planetary’은 ‘전 지구적’으로 구분해 번역한다.



1966 년 8 월 23 일, 달 근처의 우주선에서 최초로 촬영한 지구 모습. 사진은 달 궤도 탐색 인공위성인 루나 오비터 Lunar Orbiter 1 호에 의해 지구로 전송되었으며, 스페인의 마



드리드 인근의 호블레도 데 카벨라에 있는 나사의 인공위성 추적소에 의해 수신되었다.
 사진은 우주선이 16 번째로 궤도를 돌 때 촬영되었다. 사진: NASA

니콜라스를 위해

1. 전 지구적 상황

(20 세기 초에 하이데거가 선언한 대로) 만약 철학이 테크놀로지의 전 지구화에 의해 또는 보다 최근에는 (21 세기 초인 우리 시대에 많은 열광적인 저자가 선언해온 대로) 전 지구적인 컴퓨터화에 의해 추동된 역사의 방향전환에 의해 종언을 고했다 해도 그와 같은 사태의 본질과 미래 또는 하이데거 본인의 용어를 빌리자면 “다른 시작 *andere Anfang*”¹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과제로 남는다. 하이데거가 찾았던 이 다른 시작에서 인간의 현존재는 존재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자유로운 관계를 획득한다. 하이데거는 그리스인들로 회귀함으로써 사유의 위치를 재정위시키는데, 그것은 얼핏 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뒷걸음으로 본인이 묘사하는 전 지구적 상황과 대결하기에 충분할까? 의심스럽다. 1930 년대에 이 글을 쓴 하이데거에게 전 지구화는 전 지구적 무사려^{無思慮, Besinnungslosigkeit}를 함축했는데, 그것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한 가령 미국과 일본에도 적용될 수 있다.² 이는 심지어 오늘날에는 한층 더 명백하다. 비록 유럽 철학은 자신을 완전히 재발명하고 있지만 파괴적 테크놀로지들은 지구 전역에 걸쳐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존재로 돌아가자’는 어떤 제안도 우스꽝스럽기까지는 않

1

Yuk Hui, “Philosophy and the Planetary,” *Philosophy Today* 64, no. 3 (November 2020)을 보라.

2

Martin Heidegger, GA 66 *Besinnung* (1938/1939) (Vittorio Klostermann, 1997), 74

.



지만 당혹스러울 수 있다.³ 유럽이 너무 늦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도착했으며, 유럽이 시작한 전 지구적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서이다. 이 상황은 하이데거가 철학의 종언의 다른 의미에 대해 말한 것을 상기시킨다. “즉 서유럽적 사유에 기반한 세계-문명의 시작”⁴ 이 그것이다.

사려는 전 지구화의 부정^{否定}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유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이다. 이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식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유를 ‘전 지구적 사유’라고 부르고 싶을 수도 있다. ‘전 지구적 사유’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를, 그리고 그것이 테크놀로지의 전 지구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정교화하려면 이 전 지구와의 본질을 한층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

전 지구화는 무엇보다 먼저 물질과 에너지의 총동원이다. 그것은 지구 위와 아래의 모든 형태의 (석유, 수력, 전기, 정신, 성 등) 에너지를 위한 상이한 채널을 창조한다. 이 말은 ‘글로벌화’라는 용어 또는 라투르^{Bruno Latour}가 ‘글로벌화-마이너스’

— 그것은 다양한 관점의 개방이 아니라 폐쇄이다⁵— 라고 부르는 것과 대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글로벌화는 ‘경계 지우기’로 가장한 채 등장했

³ 이 물음에 대해서는 *Art and Cosmotechn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orthcoming 2021)에서 상술한 것이다.

⁴ Martin Heidegger, “The End of Philosophy and the Task of Thinking,” in *On Time and Being*, trans. Johan Stambaugh (Harper & Row, 1972), 59.

⁵ Bruno Latour, *Down to Earth: Politics i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 Catherine Porter (Polity, 2019), 15.



는데, 타자들에의 개방이 자본과 물류의 흐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경제적 고려에 의해 추동되었다. 시장의 정복은 땅의 정복과 함께 도달되었다. 역사는 교역과 식민화가 항상 깊게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 전유되고 각종 경계에 의해 둘러싸일 때 — 근대의 민족[국민]-

국가가 유일한 포스트콜로니얼적 실재임을 가리키는 지표이다 — 식민화가 계속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시장 정복뿐이다. 근대적 외교가 군사적 개입 이외의 것을 수단으로, 즉 '소프트 파워'나 '문화'를 통해 이 과정에 기름을 붓는다.

시장 정복은 물적재와 자본의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동원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와 잉여를 만들어낸다. 냉전 이후 글로벌화는 이 동원을 크게 가속화시켰다. 오늘날 문명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단 40년 만에 인구가 10억 명 이하에서 14억 명으로 거의 50%나 증가한 나라를 상상해보라. 이 정도의 인구증가와 소비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육지와 바다와 인간존재의 착취가 필요할까?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아마존의 산림파괴가 동일한 40년 동안 15%나 증가했으며,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치하에서는 초당 축구장 3개 크기의 산림이 사라질 정도로 가속화되어왔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영원히 사라졌는가? 글로벌화는 인류라는 종이 최대한의 가속화에 이르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정학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이해 당사자는 심지어 환경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맘에 들건 그렇지 않거 '전 지구화'가 오늘날 철학하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 성찰은 근대적 테크놀로지의 악마화나 테크놀로지적 지배의 가속화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점점 더 SF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열어보려는 바람에서 나온 결과이다.



2. 오인의 변증법

총동원은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가속화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것은 또한 인간과 비인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테크놀로지적 진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음식배달업과 이 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알고리즘의 불안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사례를 제공한다. 인간-자전거 노마드가 인간-앱이 내려는 명령[주문]에 의해 페달로 밟아진다. 이 모든 것은 배고픔과 욕망에 의해 지시되는 정신지리학에 의해 추동된다. 노마드는 데이터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의한 죽음을 무릅쓴다. 배달원은 자기의 유기적 몸이 아플 때보다 자전거가 망가졌을 때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고통은 명령[주문]과 배달의 효율적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유래한다. 마르크스가 공장에 대해 묘사한 것 — 그것은 팩스콘이나 다른 회사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 이 모든 산업을 가로질러 일반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영역의 노동자가 데이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처벌되고 있다. 이 실천이 대상부터 생명체까지, 개인부터 국가까지 보편적 계산 가능성에 기반해 모든 수준에서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약속한다. 그것은 또한 하이데거가 닙달[또는 부품화]^{Gestell}이라고 부르는 것을 드러낸다. 현대 테크놀로지의 본질이 그것으로, 그것에 따라 모든 존재는 계산 가능성에 따르는 부품 또는 소재로 간주된다.

닙달[또는 부품화]은 운동학적 kinetic 정치로 표현되는데, 슬로터다이크는 그것을 현대의 핵심적 특징으로 묘사한다. 그는 이 운동론 ‘총동원’ — 윙거 Ernst Jünger 가 전시의 운동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악명높은 용어⁶—과 연관시킨다. 총동원은 물질, 정보, 금융 재화의 ‘가용성’과 ‘접

6

Peter Sloterdijk, Infinite Mobilization: Towards a Critique of Political Kinetics, tra



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표현된다. 식품 배달업의 경우 총동원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집밥 같은 authentic' 음식이 개인의 부엌 식탁 위에 놓이는 것을 허용한다. 따뜻하며, 맛도 좋다는 모든 약속과 함께 말이다. 상품의 총동원은 또한 인간의 노동과 그 분신, 즉 '자연'의 부정의 순환이기도 하다. 이 총동원은 또한 글로벌한 에피스테메와 미학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가속화의 필요에 의해 추동된다. 세계를 하나의 구^求로 실현하는 것은 고대 이후 지속적인 형이상학적 프로젝트였다. 근대적 테크놀로지에 의한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형이상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포스트-형이상학적 세계로의 매끈한 이동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이 형이상학적 힘이 여전히 인간 존재의 운명을 짊어주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물음이 남는다. 즉 이 형이상학적 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그것은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나는 다른 곳에서 일방적인 식민화 과정으로 찬양되어온 글로벌화는 지금 주인-노예 변증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⁷ 주인-노예 관계는 공장 및 시장과 관련해 특정한 국가에의 지나친 의존에 의해 궁극적으로 전복된다. 인정에 대한 노예의 욕망 *Begierde*(이 경우 그것은 민족주의적이다)은 노동과 테크놀로지에 의해 실현되며, 주인-노예 관계를 전복시킨다. 이 모순적 순간에 각성한 '주인'은 노예가 더 이상 자기를 위협할 수 없게 되며, 다시 한번 자기에게 종속되도록 자체의 경계들을 재수립하고 노예에의 의존을 축소해야 한다. 이 순간을 지구화의 종말로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는 자기 위치를 재정립해야 하며, 서구의 지배에 대한 위협을 국지화하고 고립시키는 등 전략

ns. Sandra Berjan (Polity, 2020).

⁷ Yuk Hui, "On the Unhappy Consciousness of Neoreactionaries," *e-flux journal*, no. 81 (April 2017).



을 재조직해야 한다. 글로벌화는 종말을 고했을 수 있다. 반지구화 운동의 완강함 때문이 아니라(그것은 조용히 사라졌다) 오히려 역사적 무대로서 그것이 약속하는 이익보다 단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말이다. 이 모순적이고 대결적인 순간은 아직 해소되지, 또는 더 좋게 헤겔적 용어를 빌리자면 화해에 이르지 않았다. 화해 *Versöhnung* 를 가리키는 이 독일어 — 헤겔 본인은 이 용어를 사용한다 — 가 이 과정을 완전히 표현해준다. 방정식의 한 편이 상대방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자기를 아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누가 아들 쪽 역할을 하건 운동학적 정치의 본성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전 형태의 글로벌화가 계속되는 한 노예 국가들은 글로벌화를 애원할 것이며 주인 국가들을 반글로벌화 행동을 한다면 고발할 것이다. 노예 국가들로부터 단절하면 (이전의) 주인 또한 고통을 겪는다. 지난 세기 동안 향유해온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불행한 의식이 출현하며, 미결된 채 남는다. 우리는 이 변증법을 멀리서 관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의 본성과 미래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헤겔을 비난한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 반대로 절대성을 향해 합리성을 밀고 나가는 그의 방법을 계속 찬양해야 한다 — 그의 후계자들이 저지른 오류를 분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세계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은 단지 역사적 재구성물일 뿐이다. 어스름 녀이 되어야만 비로서 날갯짓을 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그것은 항상 이미 너무 늦다. 그리고 미래로 투영될 때 이 변증법적 운동은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으로 유명한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에서 볼 수 있듯이 쉽게 열광 *Schwärmerei* 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인-노예의 변증법적 운동은 권력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며 오직 권력의 배치 *configuration* 만 바꿀 뿐이다(그렇지 않다면 봉건사회를 계승한 부르주아사회는 폐지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고전적인 헤겔적-마르크스주의적 변증법에서처럼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이 계급



자체가 권력을 지배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변증법은 주인의 극복을 전제하지만 동일한 권력이 새로운 괴물 속에서 재구현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맹점이다. ‘주인’을 극복하려는 욕망은 시장의 승리에 불과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인 국가들은 반시장, 반글로벌적이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그러한 변동은 단지 시장 개방의 약속일 뿐으로, 보다 집중적인 전 지구화와 프롤레타리아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개념과 실천의 근본적 변형을 요구하는 교착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3. 분기라는 정언명령

그와같은 교착상태의 시작이자 종말인 글로벌화에 대한 사유는 전 지구적 사유가 아니다. 글로벌한 사유는 글로벌한 것과 지역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변증법적 사유이다. 그것은 두 괴물을 낳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파시즘과 민족주의라는 괴물이 그것이다. 전자는 그것의 인식론과 윤리를 보편화시킨다. 후자는 외부의 위협과 전통적 가치를 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최근의 지정학적 변동을 가속화시켜왔다. 팬데믹은 글로벌화의 종언을 선언하는 가운데 그것이 파국이라는 역사적 신시대의 시작을 표시한다는 감정 말고는 진정한 비전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명하고 있는 ‘앙시앵레짐’을 구하자는 모든 호소는 퇴행적 정치를 위한 투쟁에 불과할 따름이다.

전 지구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위한 정언명령이다. 글로벌화의 허울일 뿐인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테크놀로지-

과학과 문화의 분리에 기초해 있다. 이 의미에서 문화는 ‘테크놀로지로부터 자유로운’ 의례, 사회적 관계, 관습, 요리법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상징적 교환 형태로 축소된다. 다문화주의는 테크놀로지와 자연은 분리되어 있다는 현대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단지 산



업혁명 이후 출현해온 현대적 테크놀로지로서만 이해된다. 이 경우 자연은 단지 외부 환경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실체들의 집합으로서만 개념적으로 파악될 뿐이다. 우리는 즉각 자연의 변증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자연은 “정신으로 다시 젊어진 이 외부성으로부터 출현하기 위해 불사조처럼 자신을 소비해야 할 것이다.”⁸ 그것은 논리(학)의 자연으로, 현대 과학 및 테크놀로지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글로벌화가 약속한 다양성은 다문화주의의 자연에서 발견되는데, 진정한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연과 테크놀로지는 이접적^{離接的} 개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베이로스 데 카스트로 Eduardo Viveiros de Castro 가 아메리카 인디언의 관점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반대되는 다자연주의를 제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후자는 자연의 다수성을 인정하는 반면 전자는 동질적 자연이라는 현대적 개념 위에 구축되어 있다. 자연과 테크놀로지는 물음을 다시 열지 않으면 우리는 양성 되먹임 회로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일단 다시 한 번 맛보게 되면 다시는 술을 끊을 수 없게 되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말이다.

우리 근대인은 알코올 중독자이다. 그리고 아마 가속화가 출구[탈출구]로 간주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한때 아민 Samir Amin 에 대해 이렇게 비난한 것을 포함하는 준^準-비극적 제스처를 통해 말이다.

아마 흐름들이 아직 충분히 탈영토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경과[과정]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⁹

⁸ Hegel, *Philosophy of Nature*, vol. 3, trans. M. J. Petry (George Allen and Unwin, 1970), § 376.

⁹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Anti-*



전 지구적 사유는 단순한 가속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화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전 지구화에 의해 초래되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 변형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소환한다. 우리가 전 지구적 사유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다양성의 세 가지 개념은 생물[생명]-다양성 biodiversity, 정신-다양성 noodiversity, 기술-다양성 technodiversity 이다.

생물-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지역성-물음이다. 그것은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며, 인간과 비인간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 이 관계는 기술적 발명에 의해 기입되고 매개되는데, 그것이 의례, 관습 그리고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민족 people 를 구성한다. 현대화와 그것의 생산주의적 형이상학은 이 차이들을 인식해왔지만 우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이 서구적 전근대 또는 비서구적 비근대가 서구적 현대보다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그것 중의 어느 가치라도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인류라는 종은 보다 큰 시스템의 일부이며, 따라서 비인간적 제스처는 우리를 그렇게 멀리까지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학자가 이미 말해온 대로 오늘날 인간-비인간 관계를 갱신하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중 데스콜라 Philippe Descola 처럼 ‘존재론적 전회’를 주장하는 인류학자 그리고 해러웨이 Donna Haraway 로 대표되는 ‘다수 종’ 학파가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문화주의를 ‘선호’하느냐 아니면 자연주의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두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약 100 년 전에 샤르댕 Pierre Teilhard De Chardin 은 정신권 noosphere 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해, 인간화 이후 이루어진 지구의 테크놀로지적

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and Helen R. Lan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4), 239-240.



포위는 “초두뇌”¹⁰의 출현에서 수렴되고 정점에 이르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여기서 이 테크놀로지적 진화는 서구화를 의미한다. 샤르댕에 따르면 동양은 ‘반시간적이고 반진화적인 반면 서양적 길은 “사랑을 포함한 수렴, 진보, 종합의 길로 시간을 실재적인 것으로 그리고 진화를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세계를 유기적 전체로 인정한다.”¹¹ 종교적 관점에서 샤르댕의 정신권은 그리스도발생 christogenesis, 즉 사랑의 보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그것은 일군의 특수한 세계관과 인식론의 보편화이다. ‘초두뇌’ 또는 ‘모든 두뇌의 두뇌’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의 증인이지만 또한 진화적이고 진보적인 서구 사상의 승리이기도 하다. 정신권의 정점은 분명히 다양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인 보편적 사랑 또는 ‘일자’로 오인되는 수렴이다. 정신권은 단편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단편화와 다양화는 오직 사유의 다양성과 기술-

다양성에 대한 사유를 한층 더 앞으로 밀고 나갈 때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술-

다양성의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학뿐만 아니라 인과 비인간의 관계를 재-환경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다양성과 정신-다양성은 모두 기술-
 다양성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기술-

10
 Pierre Teilhard de Chardin, *The Future of Man*, trans. Norman Denny (Image Books, 2004), 151. “호모 파베르가 등장했을 때 최초의 초보적인 도구가 인간 신체의 부속 기관으로 태어났다. 오늘날 도구는 모든 인류와 관련된 (자체 내부에서 일관된 그리고 매우 가변적인) 기계화된 외피로 변형되었다. 신체적 존재로부터 ‘정신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11
 Joseph Needham, “Preface,” in Ursula King, *Teilhard de Chardin and Eastern Religions* (Seabury, 1980), xiii.



다양성이 없으면 우리는 단지 비인간적 작인^{作人}과 세계 자체를 동질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 마치 동질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과 동일한 것인 듯 말이다. 만약 테크놀로지를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19 세기에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기술을 소박하게 수입한 것과 관련해 20 세기에 토인비 Arnold Toynbee 가 이야기한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즉 그는 16 세기에 극동 사람들은 유럽이 종교와 테크놀로지를 수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유럽인을 거부한 반면 유럽인들이 기술만 수출한 19 세기에 극동의 국가들은 기술을 동양의 정신이나 사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중립적 힘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¹²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가 대양적 현존재의 지배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슈미트도 토인비의 동일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동양은 우리에게 의해 발전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¹³

4. 인식론적 외교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Nomos der Erde*』은 테크놀로지의 역사에 대한 성찰로 시종한다. 수 세기 동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경쟁한 후 20 세기에 우리는 전투기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공군의 등장을 보게 되었다. 21 세기에 권력[힘]은 의회가 아니라 인프라구조에 있다. 관찰력이 뛰어난 일부 저자는 2003 년과 2013 년에 발행된 유럽의 은행권은 더 이상 정치나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가 아니라 인프라구조를 싣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기술경쟁은 기업부터 군사방어와 국가행정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전장이 되었다. 인프라구조는 유물론적 개념인 것만이 아니다. 경제적, 조작적, 정치적 목적에 덧붙여 인프라구조는 또한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일군의 복잡한 가치론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을 내장하고 있다. 전 지구적 사유에 중심적인 다양

¹² Arnold Toynbee, *The World and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67.

¹³ Carl Schmitt, *Dialogues on Power and Space* (Polity, 2015), 67.



성이라는 개념이 아직 제대로 사유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전 지구적 사유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한층 더 자세히 묘사하기 위해 — 여기서는 이 과제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무엇이 전 지구적 사유가 아닌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 지구적 사유의 윤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 사유는 다양성의 보존 — 그것은 외부의 파괴에 맞선다 — 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의 창조에 관한 것이다. 이 다양화는 지역성의 인정에 정초되어 있다. — 단지 지역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비록 그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남아 있지만 말이다) 또한 지역성에 봉사하도록 그것을 혁신하기 위해 말이다. 우리는 지상의 존재로서 항상 이미 상륙해왔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전 지구화에 의해 방향을 잃었다. 달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발아래 있는 땅을 알아차리지 못한다.¹⁴ 코페르니쿠스 이래 공간의 무한성은 거대한 허공으로 상징되게 되었다. 이 허공에 내재적인 불안과 허무주의적 경향은 데카르트적 주관성이 맞상대해야 할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인간 자체에게 귀속시켰다. 오늘날 데카르트적 성찰은 인류세에 대한 찬양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심으로부터 X를 향해 나아간”¹⁵ 오랜 시기 이후 인간이 회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간의 무한성은 자원의 착취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인류는 이미 지구로부터 도

¹⁴ 이것이 또한 대지적 사유 *errestrial thinking*라는 라투르의 접근방식이 우리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 대지적 사유는 좌와 우, 모던과 비-모던 등 모든 것의 공통분모이다. 그는 대지적 사유를 지역적 사유 및 글로벌한 사유 모두와 대립시킨다. 그의 *Down to Earth*, 54페이지를 보라.

¹⁵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to Power*, trans. Walter Kaufmann and R. J. Hollingdale (Vintage Books, 1968), 8.



망쳐, 우리로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검은 물질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다양화는 전 지구적 사유의 도래를 위한 정언명령이며, 다시 그것은 지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전 지구적 사유는 민족주의적 사유가 아니다. 대신 민족[국민]-국가 그리고 그것의 외교라는 개념에 의해 이미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민족이나 국가의 존재의 최종 상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유명의 부활일 뿐일까? 지난 20 세기에 민족[국민]-국가가 지정학의 기본 단위가 된 이래 외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왔다. 외교는 강력한 민족적 이익과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반해왔으며, 이 모든 것은 생태 위기와 맨데믹의 글로벌한 확산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져왔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현재의 위기에 대한 갑작스런 인정이 또한 외교적 필요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정은 경제성장과 군사적 팽창에 의해 부양되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외교가 도래해야 한다. 즉 기술다양성이라는 기획에 기반한 인식론적 외교가 그것이다. 이 새로운 외교는 외교관들 — 이들은 점점 더 소셜미디어의 소비자이자 희생자가 되고 있다 — 보다는 지식의 생산자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전 지구적 사유는 선불교적 깨달음이나 기독교적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국 상태 속에 존재하며 그런 상태 속에 남아 있으리라는 인식이다. 슈미트에 따르면 신은 이미 인간에게, 인간은 기계에게 권력을 이양했다.¹⁶ 지구의 새로운 노모스는 테크놀로지의 역사와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따라 사유되어야 한다. — 그리고 슈미트가 결코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테크놀로지의 미래이다. 농업부터 산업 생산에 이르

¹⁶ Schmitt, *Dialogues*, 46.



기까지 산업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을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적 실천과 지식의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적 파열과 가속화를 위한 재주를 기르는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대학과 대학의 지식 생산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지식과 실천의 그러한 재조직화가 21 세기에 대학을 재사유하는 데서 주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생명다양성, 정신다양성, 기술다양성은 분리된 영역들이 아니라 밀접하게 서로 뒤엉켜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근대인은 대지, 바다, 그리고 하늘을 기술적 무의식으로 정복했다. 그들이 발명해 사용한 도구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 철학에 대한 최초의 논고가 헤겔주의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거의 질문하지 않았다. 캅 Ernst Kapp 및 마르크스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된 테크놀로지 철학은 아카데미철학에서 중요한 흡인력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테크놀로지적 의식’으로 근대 이후 우리를 상이한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할까?¹⁷ 아니면 그저 테크놀로지가 개발도상국에서 기본적인 생산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근대적 프로젝트를 보다 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까? 전 지구화는 아마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불행에 의해 각성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비극적 영웅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헛된 욕망 아래 항상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포스트-

형이상학적 세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사유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바로 그것

1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China: An Essay in Cosmotechnics (Urbanomic, 2016)에서 나는 리오타르의 Jean-François Lyotard 포스트모던 프로젝트를 특징짓기 위해 ‘테크놀로지적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22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이다.

계속

번역: 조형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층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38, BUSAN ASIAO MAIN STADIUM, 344 WOLDOCU ST.,
 YEONJUE-GU, BUSAN, 47900, KOREA